새로운 분위기의 9홀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27홀 개장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호랑이, KS직행 티켓 지킨다

SK와 마지막 홈 2연전서 발목…12승 2무 7패로 시즌 마무리

한국시리즈 재격돌 가능성…벌떼 마운드 두드릴 묘책 찾아야

야구마구 프로야구

KIA의 가을잔치, SK와의 대결에서 그 답을 찾는다.

KIA 타이거즈가가 9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SK 와이번스와의 정규리그 마지막 대결을 펼쳤다. 돌아온 구톰슨을 내세우고도 1-3의 패배를 기록한 KIA는 앞선 8일에도 SK에 3-16의 대패를 당하며 올 시즌 양팀의 전적은 10승2무7패가 됐다.

지난달 21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SK와의 주말 3연전에서 싹쓸이 3연승을 기록하며 한국시리즈 직행을 위해 속도를 냈던 KIA는 홈에서 아쉬운 2연패를 당하며 브레이크가 걸렸다. 하지만 KIA는 가을 잔치에서 재격돌 가능성이 높은 SK와의 대결을 통해 가을 잔치를 향한 로드맵을 그려볼 수 있었다. 특히 홈에서의 2연패는 'V10'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를 남겼다.

전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KIA는 지난해 4승14패를 안긴 SK를 상대로 10승2무 7패의 성적을 이끌어냈다. KIA는 올 시즌 25승을 합작한 두 용병과 신예 좌완 양현종을 내세운 견고한 마운드로 '벌떼 마운드' SK와 시즌 내내 팀 방어율 1·2위를 다퉜다.

양팀이 주고받은 홈런 갯수는 25개와 14개. 김상현을 중심으로 묵직해진 KIA 타선은 SK로부터 25개의 홈런을 뽑아내는 파괴력을 과시하며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하지만 KIA의 승승장구를 주도했던 이 두가지 장점이 마지막 2연전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

올 시즌 견고한 선발진으로 흔들림없이 마운드를 지켜왔던 KIA는 SK의 철벽 불펜에 막혀 중요한 순간에 2패를 당했다.

SK전에서 각각 2승을 기록했던 서재응과 구톰슨이 나란히 선발로 출격했지만 SK 불펜진의 공세에 완패를 당했다.

특히 9일 초반 1실점으로 흔들리며 SK선발 송은범이 아웃카운트 하나 없이 조기 강판됐지만 정우람-윤길현-고효준으로 이어지는 불펜진은 완벽하게 KIA를 제압했다. 여기에 이승호-전병두 두 좌완도 SK불펜에 힘을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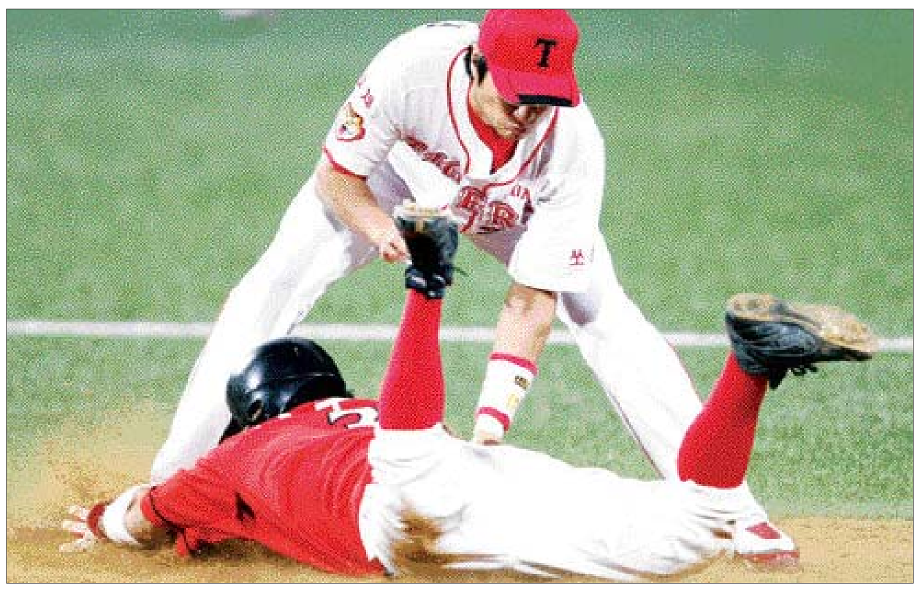
SK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펜의 힘이 떨어지는 KIA는 초반 선발이 흔들리면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밖에 없다. 특히 믿을 만한 좌완 불펜투수가 없다는 것은 KIA의 아킬레스 건이다.

홈런도 KIA에게는 양날의 검이다. SK에게 승리한 10경기 중 4경기는 홈런이 결승타가 됐다. 김상현의 홈런 3개가 동시에 터진 8월 8일과 이재주의 대타 홈런이 성공한 8월 22일 경기도 홈런이 승리의 키가 됐다.

한방으로 8월의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구며 승을 쌓던 KIA는 세밀한 플레이에 아쉬움을 남기며 9월 패를 쌓고 있다. 한방의 의존도가 높았던 만큼 타선의 짜임새가 느슨해져 매직넘버 줄이기에 비상이 걸렸다.

탄탄한 조직력과 세밀한 플레이, 한국시리즈 2연패의 주인공 SK가 가을잔치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KIA에게 남겨준 숙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9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와 SK의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KIA 유격수 이현곤이 9회초 무사 1루 SK 8번 정상호 타석때 도루를 시도한 1루주자 나주환을 태그아웃 시키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10일 오전 천안 우정힐스 골프장에서 열린 '제52회 한국오픈 골프선수권대회'에서 배상문이 8번홀에서 티샷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타자' 김대현 4언더파 공동선두

한국오픈 골프선수권 1R

세계 영건들을 불러모아 펼쳐진 제52회 한국오픈 골프선수권대회 첫날 한국의 장타자 김대현(21·하이트)이 공동선두로 나섰다.

김대현은 10일 천안 우정힐스 골프장(파71·7천185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더블보기 1개를 적어냈지만 버디 6개를 쓸어담으며 4언더파 67타를 쳤다.

김대현은 강경술(22), 마이클 라이트(호주), 박부원(45), 김대섭(28·삼화저축은행)과 함께 리더보드 상단에 자리잡았다.

공동 선두만 5명에 언더파 스코어를 적어낸 선수 26명이 몰리면서 우승자의 윤곽을 잡기는 아직 이른 상황.

김경태(23·신한은행)가 3언더파 68타, 6위에 올라 공동 선두에 1타차로 추격했고 차세대 세계랭킹 1위를 꿈꾸는 영건들도 2라운드부터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회 최고 흥행카드 이시카와와 이진명은 작년 대회 우승자 배상문과 동반 플레이를 펼치며 중위권에 자리를 잡았다.

이시카와는 13번홀(파3)에서 티샷을 연못에 빠뜨려 2타를 잃고 보기 2개를 보탰지만 버디 5개를 뽑아내는 만만치 않은 실력을 과시하며 처음 출전한 한국대회에서 공동 12위(1언더파 70타)로 첫날을 마쳤다. 이진명은 배상문과 함께 공동 27위(이븐파 71타)에 머물렀다.

배상문도 전반에 3개홀 연속 버디를 잡아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10번홀(파4)에서 티샷이 오른쪽 숲으로 들어가 레이업을 하는 바람에 2타를 잃은 배상문은 12번홀(파4)에서도 티샷을 경기구역 밖으로 날려 보내는 바람에 다시 더블보기를 적어냈다.

하지만 300야드를 훌쩍 넘기는 시원한 장타를 뽐낸 배상문은 남은 홀에서 버디 2개, 보기 1개로 타수를 줄여 이븐파를 만들어 2라운드를 기약했다.

또 한명의 영건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전반에 2타를 잃었던 부진을 후반에 모두 만회하며 한국프로골프 상금 랭킹 1위를 달리는 이승호(23·토마토저축은행) 등과 함께 이븐파 대열에 합류했다.

US아마추어챔피언십 우승자 안병훈(18)은 4오버파 75타를 쳐 공동 86위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KIA 심동섭 1억8천만원 계약

신인선수 8명 입단 합의

2010년을 기다리는 '아기 호랑이' 광주일고 심동섭(투수·사진)이 계약금 1억8천만원, 연봉 2천4백만원에 KIA 타이거즈와 계약을 끝냈다.

KIA는 10일 2010년 1라운드 지명선수인 심동섭을 비롯해 2라운드 지명을 받은 진흥고 투수 임기준과 계약금 1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이외에도 KIA는 내야수 이인행(덕수고·9천만원), 외야수 임한용(건국대·8천만원), 내야수 이제우(신일고·7천만원), 포수 김태훈(영남대·5천만원), 내야수 홍재호(고려대·4천만원), 투수 이정훈(충암고·2천만원) 등과도 입단에 합의하면서, 대학 진학을 결정한 9라운드 최유진(서울고)을 제외한 2010년 신인선수 8명과의 계약을 마무리 지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양용은 메이저 우승 경제효과 1조

국민체육진흥공단 분석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이저 대회 우승이 1조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를 유발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본부가 김도균 경희대 체육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용은의 우승이 ▲우승 상금과 메이저대회 5년간 출전권 확보 등 선수 개인가치 증대(1천500억원) ▲후원 기업 매출 및 브랜드 이미지 증가(2천584억원) ▲골프 산업 및 용품 매출 증가(600억원) 등의 직접적 효과는 물론 ▲국가 이미지 개선 및 국가브랜드 상승(1천300억원) ▲국민의 일체감 조성 및 자부심 증가(200억원) ▲제주도 홍보 (224억원) 등 간접적 효과를 합쳐 약 1조988억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는 양용은의 우승 소식 및 후원 기업 브랜드의 TV, 신문, 인터넷 등 미디어 노출 조사 결과를 언론 매체 광고비와 연동해 산출했다. 또 110위에서 34위로 뛰어오른 양용은의 세계랭킹과 메이저 대회 5년간 출전권 획득 등 선수 개인 가치 및 국가브랜드 상승효과 등을 2002 한일 월드컵축구이나 LPGA 대회 등 타 사례와 비교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양용은의 우승이 미국 스포츠전문채널 폭스스포츠로부터 '스포츠 역사상 3대 이변'으로 꼽히는 등 주요 외신에서 대서특필돼 전 세계로 전파된 점을 들어 '단군 이래 최대의 개인 노출'로 평가했다. /연합뉴스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1. 매우 잘 들립니다. 2. 안보입니다. 3.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본 점(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충장점(062)227-9970
순천점(061)752-9940
목포점(061)262-9200
익산점(063)851-2422